

# 불국사 석탑 중수문서 종이 뭉치에서 찾아낸 역사

1024년(현종 15) ~ 미상



## 1 개요

불국사 석탑 중수문서(重修文書)는 1966년에 경주 불국사(佛國寺) 삼층석탑, 세칭 석가탑(釋迦塔)을 해체 수리했을 때 사리장엄구(舍利莊嚴具)와 함께 출토된 묵서지편(墨書紙片)을 복원하여 얻은 세 건의 문서를 이른다. 1024년(현종 15)과 1038년(정종 4) 두 번에 걸쳐 불국사 석탑을 중수하게 된 원인과 과정, 중수에 참여한 인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2 불국사 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와 묵서지편

1966년 9월 8일, 국보 제21호 불국사 삼층석탑이 훼손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전국이 큰 충격에 빠졌다. 석탑이 훼손된 날은 9월 6일로, 처음에는 며칠 전에 있었던 지진으로 인한 훼손으로 추정되었으나 조사 결과 인위적인 파손으로 석탑에 봉안된 사리장엄구를 훔치기 위한 도둑들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사리장엄구란 불탑에 사리를 봉안할 때 마련하는 사리 용기와 각종 공예품, 공물 등을 아울러 부르는 말이다. 다행히 사리장엄구는 무사했고 도굴범은 곧 체포되었다. 한편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 석탑 해체 수리가 시행되었다. 해체 수리 과정에서 장비 문제로 탑신 옥개석이 손상되는 사고가 있었으

나, 더 큰 문제없이 수리를 마쳤으며 이 과정에서 2층 탑신 안에 봉안되어 있었던 사리장엄구 일체와 사리 48과를 수습하였다.

출토된 유물은 불국사에서 보관하다가 같은 해 12월에 사리를 사리장엄구 일부와 새로 제작한 사리장엄구 복제품과 함께 불국사 석탑에 다시 봉안하였다. 그런데 실수로 사리병을 파손하고 사리 2과를 잃어버린 사건이 1967년 1월에 알려지자 봉안되지 않은 유물을 모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 보관하게 되었다. 같은 해 9월 16일, 불국사 삼층석탑 사리공에 발견된 유물 28점이 국보 제126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2010년, 불국사 삼층석탑 기단부에 균열이 확인되어 논의 끝에 석탑 해체 수리가 결정되었다. 2012년에 수리 작업을 착수하였고 2013년에는 1966년에 재봉안한 사리장엄구를 수습하였다. 또한, 상층기단부에서 1966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청동불상 1점이 새로이 출토되었다. 2018년에 불국사박물관이 개관하자 국립중앙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던 사리장엄구 일체는 모두 불국사로 반환되었다.

불국사 삼층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자. 2층 탑신석 상면 중앙에 사리공이 있고 사리공 한가운데에는 금동제 방형사리함인 봉안되어 있고 사방에는 동경(銅鏡), 목제 비천상(飛天像) 등 각종 공양구가, 사리함 아래쪽 바닥에는 비단에 싸인 종이 뭉치가 각각 봉안되어 있었다. 이 종이 뭉치에는 먹으로 글씨가 쓰여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나 당시 기술로는 낱장으로 분리하여 살필 수 없었기에 ‘먹으로 글씨가 적힌 종이 조각’이라는 뜻에서 통째로 ‘묵서지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금동제 방형사리함 안에는 신사리(身舍利)를 담은 사리장엄구 세 세트, 법사리(法舍利)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 이하 무구정경)』, 그리고 향목 등의 공양품이 봉안되어 있었다. 중앙에는 2층의 은제 사리기와 초록색 유리병으로 구성된 세트가, 동편에는 금동제 장방형사리함과 목제 사리병 세트가 봉안되어 있었고, 서북쪽에는 소형 은제사리호, 은제 소형원형합 등으로 구성된 사리장엄구 세트가 봉안되어 있었다. 이 중 대부분은 통일신라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중앙에 놓인 은제 사리기의 경우에는 고려 시대에 불국사 석탑을 중수할 때 통일신라 스타일로 제작하여 새로이 봉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묵서지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 묵서지편은 완전히 산화하여 종지와 흙먼지가 함께 뭉쳐 한 덩어리로 응고된 채 발견되었는데 보존처리기술의 한계로 어떠한 처리도 하지 못하고 발견된 상태 그대로 보관할 수밖에 없었다. 출토된 지 30년이 지난 1997년에 이르러서야 이를 낱장으로 분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묵서지편은 전체 110장의 종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크기는 대략 가로 10cm, 세로 13~15cm라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그 이상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추후의 작업을 기다리며 그대로 보존되었다. 또다시 10년이 지나서야 묵서지편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 3 불국사 석탑 중수문서 복원과 내용

국립중앙박물관은 2006년에 불국사 석탑 출토 묵서지편의 기초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작업은 크게 두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글자 판독 작업이고 다른 하나는 110장의 낱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문

서의 연결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다. 특히 문서 연결 관계 조사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큰 종이를 모종의 방법으로 여러 번 접어서 둔 것이 오랜 세월을 지나며 한 덩어리로 붙어 버렸고, 더구나 접힌 부분은 모서리가 되어 해지면서 각각의 접힌 층이 낱장으로 떨어지게 되어, 전체 종이의 원래 모습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원래 어떤 순서로 접었는지도 알 수 없으니, 복원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낱장의 대략적인 위치를 잡은 후 판독과 해석을 진행하며 문서의 배치를 재검토하며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문서의 원래 모습을 복원할 수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초 조사를 토대로 2007년부터 1년간 전문가들이 심층 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목서지편을 『일체여래심비밀전신보협인다라니경(一切如來心秘密全身寶篋印陀羅尼經)』과 중수문서로 크게 구분하고 중수문서는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문서(佛國寺无垢淨光塔重修文書)」,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 「불국사탑중수보시명중중승소명기(佛國寺塔重修布施名公衆僧小名記)」의 독립된 3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각 문서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

먼저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문서」는 1024년(현종 15)에 이루어진 불국사무구정광탑 중수에 대해 기록한 두 문건이 붙어 있는 형태의 문서이다. 두 문건의 명칭은 각각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佛國寺无垢淨光塔重修記)」와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형지기(佛國寺无垢淨光塔重修形止記)」이다. 중수기에는 불국사가 742년에 창건된 이래의 내력, 1022년(현종 13)부터 탑 중수를 준비하여 1024년에 탑을 중수하고 사리를 안치하게 된 과정, 시주자 명단이 적혀 있고, 형지기에는 중수 작업 동안 받은 시주물 내역이 적혀 있었다. 이 문서의 가장 아랫부분에는 원래 문서가 만들어진 것은 1024년이나 1038년(정종 4)에 다시 베껴 적었다는 기록이 있다.

두 번째 문서인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에는 1038년에 이루어진 서석탑(西石塔) 중수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036년(정종 2)에 대지진으로 불국사와 서석탑이 피해를 입어 무너지려는 서석탑에 버팀목을 대어놓고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1038년에 다시 지진이 일어나 피해를 입고 말았다. 이때는 나라의 지원을 받지 못했기에 자체적으로 모임을 결성하여 재물을 모아 중수를 진행하였다. 약 1개월에 걸쳐 석탑을 해체 수리하고 마지막에는 사리를 재봉안하며 공사를 마무리하였다고 한다. 마지막 문서인 「불국사탑중수보시명공중승소명기」는 불국사탑을 중수할 때 참여한 시주자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 4 불국사 석탑 중수문서의 가치

이상에서 살펴본 불국사 석탑 중수문서는 그야말로 국보급의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고문서는 매우 희귀한데, 그중에서도 고려 전기에 작성된 것은 더욱 드물어 높은 가치를 가진다. 불국사 석탑 중수문서는 11세기 고려의 사회상을 세밀하게, 그리고 폭넓게 기록하고 있다. 석탑 부재의 명칭, 공사에 사용된 장비의 이름부터 승려와 불교계, 지역사회와 인물, 각종 제도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이 문서는 11세기의 언어를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다. 문서에는 많은 이두(吏讀)와 구결(口訣)이 들어 있는데 상당수가 이 문서에서 처음 발견된 것이다. 이 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현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려 전기의 역사상에 대하여 새로운 모습을 알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

이와 같이 불국사 석탑 중수문서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불국사 석탑 사리 공 속 종이 뭉치에 이처럼 귀중한 역사가 들어 있었을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